

미국의 회개와 부흥 위한 기도회 D-8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파사데나 로즈볼에서... 한인들 순서는 오후 6시 15분 시작

미국 캘리포니아의 도덕적 부패를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연합중보기도회가 인종을 초월해 11월 11일 오전 11시 파사데나 로즈볼에서 열린다. 대회 공식 명칭은 로즈볼 11.11이다. 이 대회를 준비하며 2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대회 강사와 임원들 모임을 가졌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시간동안 열린다. 이 일정 가운데 한인이 배정받은 시간은 오후 6시 15분부터 2시간동안이다. 이 시간에는 한인 강사들과 순서자들이 기도를 인도한다. 로즈볼 수용인원은 8만5천여명 정도로 한인 교회에서는 참석 인원 목표를 1만명으로 정했다.

한어권은 김영길 목사, 한기복 목사, 김인식 목사, 엄영민 목사, 박용덕 목사, 진유철 목사, 유영기 목사, 박성규 목사, 김정숙 사모, 그리고 영어권은 김성민 목사, 박형은 목사, 최경욱 목사, 한종수 목사, 김준근 목사, 스테판 정 목사 등이 기도회를 인도한다.

이날 준비 모임에서 목회자들은 △각 교회들이 이번 집회를 개교회



로즈볼 기도회를 준비하며 교계 관계자들이 준비 모임을 열었다.

금요집회를 대신해 참여하는 한편, △행사 직전 주일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광고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집회 동원을 위해 주님의 목회자와 성도에게 참여를 권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전 10시부터 임장이 가능하며 기도회는 찬양과 기

도로 진행됐다. 기도회의 첫 시작은 아메리칸 인디언이 열며, 이스라엘, 시리아, 리비아 참석자들이 기도회를 이어간다.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정치인, 관리들이 다음 순서를 맡고 미국 청년팀, 라티노팀이 그 열기를 잇는다. 오후에는 이스라엘 참석자들이 성찬식을 거행한 후 한국팀

의 기도회가 오후 6시 15분부터 진행된다.

전체적인 기도제목은 회개와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며 미국 및 전세계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행사 당일 입장료는 없고 주차료는 10불이며, 음식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토마스 맹 기자

INTERVIEW

예수님의 섬김만이 우리 목회의 시작이자 해답

빅토빌 예수마음교회 김성일 목사 인터뷰

전체 한인 5천명 정도 되는 지역에서 한인 목사로 목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풍요로운 거리가 있는 곳에서 아픈 영혼들을 목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9년 전 빅토빌에 예수마음교회를 개척해 시무하고 있는 김성일 목사. 남가주에 빅토빌이란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의 목회 이야기를 들어 본다.

그의 목회 철학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섬김이다. 빌2:5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에서 교회 이름이 나왔듯이 그의 목회 철학도 이 구절에서 나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낮아짐과 섬김의 마음이 목회의 첫째, 둘째, 셋째라고 믿는다. 그는 "교회 성장, 세계 선교, 지역 사회 봉사, 다 좋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섬김을 실천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이고 복음 전파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또 섬김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목회의 모든 분야가 다 섬김이길 기도하고 있다. 그는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남가주교육사역자회 부



예수마음교회 김성일 목사

위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로스앤젤레스노회 노회장, 국제개혁대 학교 신대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빅토빌 한인목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제개혁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1994년 목사로 안수받은 후, 서울 충현교회, 하시엔다 임마누엘 교회, 라싱 빌라델비아 교회 등을 섬겼다. 또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목회자 세미나 강사, 돌로스 미디어선교회 디렉터, 어깨동무사역원 서부지역 책임자, 월드미션대, 국제개혁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영상예배 및 미디어사역 목회자 세미나 강사 등으로 맡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2012년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열려

한국교회정보센터(대표 김항안 목사)가 31일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2012년 목회 계획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주 지역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이 세미나에서 강사 김항안 목사는 21세기 목회를 위한 콘텐츠와 노하우를 전담했다. 김 목사는 세계 최초로 목회자의 날(6월 5일)을 제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세미나에서 “송구영신예배는 새로 시작되는 한해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를 맺는 순간이고 새로 시작되는 1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위대한 의사 표시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관계를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장엄한 조신식 장소가



김항안 목사

바로 송구영신예배이므로 목회자는 송구영신예배가 1년의 성공과 실패를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는 송구영신예배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역사적 순간임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그 축복의 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계획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하는 한편,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신앙 생활 카드, 올해 내게 주시는 찬송 등을 미리 준비해 성도들이 1

년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한 주간 중 가장 거룩한 날이 주일이라면 1년 52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일은 바로 ‘성주간’이라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 등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다 포함된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1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목사는 “예배와 설교는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이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 하시는 감동의 축제, 영원한 명랑이 영원한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거룩한 장소”라며 “예배는 찬송, 기도, 말씀, 감사가 역사되는 지상천국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은 예배는 있으나 벽장 감각의 만남이 없고, 설교는 있으나 복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복음의 감각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기에 교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 자신이 예배와 설교가 변하면 교인이 변하고, 교인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음적인 생수가 목회자에게 넘쳐 복음적인 설교와 예배가 만들어지면 언제 어디서나 사도행전과 시편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877-580-2424
전화 323-582-2424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크로버 탄소매트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전기선이 없는 매트 보셨어요?
전기선이 아닌 탄소 발열체 원단 사용
원적외선 방사율 90%
전기세절감 매일 10시간 사용시 한달 전기사용료 \$3미만
물세탁이 가능
초극세사 원단
항균 및 진드기 억제, 탈취

제품 바닥면을 원단 사용 도트 처리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기존 전기매트 비교 크로버탄소매트
발열체 탄소섬유원단
전기열선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대리점 문의 www.crovergreen.com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천기 (213) 386-4882 * ABC 플라자 (213) 386-1155 * 헬스코리아 * 아시마켓 (213) 487-4986 * 갤러리아 (323) 733-4986 * 홈타운 메디컬 (213) 380-1599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Gardena * Marukki (310) 660-6300 Torrance * 네이비스 (310) 326-6666 Cerritos * 이불나라 (562) 402-3737	Garden Grove * 주왕나라 (아리랑마켓) (714) 539-8860 San Diego * 이불나라 (시온마켓) (858) 496-0766 * 코 네이비스 (858) 874-7777 Santa Clara * 이불나라 (408) 834-3004 Tacoma 워싱턴 * 신신백화점 (253) 589-5388	Flushing 뉴욕 * 아비한복 (718) 886-8101 Annandale 버지니아 * Spring Water (571) 228-2260 * 만수건강 (703) 750-6699 Petersburg 버지니아 * John's A.O. Furniture (804) 732-0115 Suwanee 조지아 * Buy N Joy (770) 232-7846	Las Vegas 네바다 * SKY-N 홈쇼핑 (702) 370-3366 Chicago 일리노이 * 하이마트 (773) 478-0007 El Paso 텍사스 * 아리랑마켓 (915) 751-6500 McAllen * La Princesa (956) 630-5788
---	---	---	--	--

지역 사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예수마음교회 김성일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목회



그래서 아예, LA와 같은 인근 큰 도시로 통근하는 사람도 있고 다이아몬드 바나 란초쿠카몽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크게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는 자영업이나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라"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한지 9년 4개월이 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저는 이곳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데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시던가요?

생각입니다. 저는 교육 목회를 오래 했고 영상, 미디어,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일 목사라고 하면 미디어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이쪽 사역을 했는데 그즈음 "해븐스 게이트(Heaven's Gate)"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전파된 한 사교집단의 주장으로 인해 47명

히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저는 깊은 생각과 사교가 목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 성도는 10명 중 8명이 외국인인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한글학교는 한인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을 잘 모르는 어린아들, 혹은 외국 어린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빅토빌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LA에서 보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6.25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고 방식을 뒤엎고 한국과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나 타민족 선교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해야 하나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목회자 빅토빌에서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계 연합사역에도 나서게 됐고 멕시코의 인도오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선교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9.11이 터졌을 때에는 시의회 모임에 가서 기도회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하는 목회란 것이 목사님의 비전과도 잘 맞았었군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왜 하는 것일까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빅토빌에서 섬기는 동안 선전, 수전, 공중전 다 해 봤습니다. 목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무엇이 목회일까? 그런데 그 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목회였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게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목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3장의 소제에 관한 말씀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고운 가루로 부수어 그것을 기름에 반죽한 후, 유황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저에게 곡물 장사를 하란 것인가?"라는 엉뚱한 질문을 드리자, 성경에서 아예 해답까지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빅토빌은 어떤 도시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빅토빌(Victorville)은 흔히 Victor와 Village가 합쳐진 단어라고들 설명합니다. 즉 승리자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이름처럼 이 동네가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곳은 수많은 인디언들이 피를 흘린 곳입니다. 백인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자의 마을이지만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무덤인 셈입니다.

이런 접근과 달리 어떤 분들은 이 마을의 설립자의 이름이 빅터였기에 빅토빌이라고 부른다고 하기도 합니다.

빅토빌에서 왼쪽으로 가면 리노, 오른쪽으로 가면 라스베가스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도박, 저쪽으로 가도 도박이란 이야기죠. 리노로 가서

도박을 할지,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할지 고민하다 생긴 도시가 빅토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 안에 한번에 뭔가 끝장내려는 성향이 있는 도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목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한인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불황과 함께 최근에는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빅토빌이 원래 부동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중 하나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한 때는 36만불 나가다 현재는 5만불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나뭇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하죠.

또 이 지역의 차세대에 대한 비전이 낮은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못하

아픔 많은 한인사회, 지역사회 위해 무엇할까 고민 고정관념 깨고 성령께서 하라는 목회 하기로

십자가 사건도 교리 아닌 예수님의 삶과 섬김 목사가 낮아질 때 평신도도 변화된다

지만 0.2-0.3% 정도라는 낮은 진학율은 이 문제의 단면을 보여 줍니다. 매년 4천5백여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학생은 1천5백명 정도이고 3천명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합니다.

미 전국에서 살인율, 강간율, 영아

유기율이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인들의 경우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생계 문제로 인해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한인의 수가 적으므로 타민종과 결혼한 가정도 매우 많습니다.

또 취직을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 집단 자살한 사건을 보며 "인터넷이 사람을 정말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터넷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목회에 필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라고 하면 열심히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명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상담필수 오전 8:30~1:30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직통 (213) 703-6863
(323) 966-5444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상담: 그레이스 (Grace)

바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부수어라. '목회'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령이 반죽하는대로 빚어라. 네가 할 일은 기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목회함에 있어서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목회는 성도를 1천 명 전도하는 것이다"라든지 "교회 성도 수를 얼마나 부흥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저는 진자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함을 얻은 후,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더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주장에는 이견을 가진 분도 많을 듯 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KAPC 소속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교리보다 섬김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설교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 무슨 설교를 설교했느냐보다 그런 설교를 하고 내려온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나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예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교리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섬김의 삶 자

체였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그렇게 살 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한인회장에 출마하라고도 했습니다. 빅토빌 지역 한인상공회의소 고문을 맡고 있던 저는 "비즈니스도 모르는 제가 상공회의소 고문까지 하는 해도 한인회장은 못합니다"라고 하면 "한인회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한인회장을 왜 못하십니까?"라

홈리스 봉사, 위탁가정 연결 사역 목회하고 남는 힘으로 섬김? 섬기는 힘으로 목회하게 되더라

리 도시에서 이들을 돌보아 줄 위탁가정을 연결해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에 빠진 사람을 찾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 가는 일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목회의 외적인 것 같지만 사실 목회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한 해의 3개월을 해외 선교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섬김을 통해 남은 9개월 목회할 힘을 얻습니다. 저는 9개월 목회하고 남는 힘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3개월 선교하며 받은 은혜로 남은 9개월

을 목회하며 빅토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목사의 목회관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목회관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습니다. 저 구석에 박혀 있던 바울을 끄집어 내서 세위 주고, 나중에는 싸워 헤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바울까지도 품었던 바나바입니다.

저는 섬김의 사역이 곧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목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 근본은 같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처럼 자신만의 성을 만들고 그곳의 영주가 되어 그곳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싸우는 모습은 사라져야겠지만요.

-미디어 사역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미디어에 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에 관해 설교할 때, 그것을 듣는 이들이 마치 지옥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울부짖고 교회의 기둥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현대 목회자들의 영성이 그와 비슷하다면 미디어 사역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영성이 그

을 따라 갈 수 없으므로 이것을 보조해 주는 수단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해 가르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정확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

다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청중들 로 하여금 더 잘 기억하고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에 이렇게 발전한 미디어와 인터넷도 모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김준형 기자



김준형 기자



순서를 맡은 목회자들(왼쪽에서부터 이웅 목사, 박동욱 목사, 이춘준 목사, 조광수 목사, 오세훈 목사, 김성일 목사, 김현주 목사)

예수마음교회 이전 감사예배 드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예배처소를 이전한 빅토빌 예수마음교회는 지난 30일 오후 4시 빅토빌 인근 윌킨스에서 교회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물려온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회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화창한 날씨 속에 시종 은혜롭게 거행된 이날 교회이전 감사예배는 김성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새찬송가 600장(교회의 참된 터)을 부른 후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인 이웅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특별강사로 초청된 느헤미야 사역원 대표인 박동욱 목사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롭게 설교했다.

박동욱 목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풀어 주시는 가운데 주의 사역을 깨닫고 변화되어 주님의 사역자들로 헌신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감사하며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라고 전했다.

설교 후 세계소망교회 오세훈 목사, 토렌스선한목자교회 김현주 목사가 권면하고 장대교회 이춘준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광고시간에 김성일 목사는 축하객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예배당을 꾸미면서 문

제 많은 건물이 교회당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령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 후 빅토빌 예수마음교회의 주체 찬송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찬송가 455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른 후 Imf 선교회 대표 겸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학감으로 섬기는 조광수 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교회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로 교제하며 다함께 교회이전의 은혜를 감사했다.

토마스 멩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앞선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료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부채감 완화 목(경부)

목(경부) 노후 예방은 일찍부터 요통을 늘리고 목근육의 긴장을 풀어 C 커브가 되게 합니다. 학생 사무원의 기목, 목디스크 예방합니다.

통상부 교은 등을 매용-다(학생 사무원 비만예방, 목디스크 예방, 요통 예방, 목근육 이완, 목디스크 예방, 목근육 이완)

MOVIE BACK 30 DAY GUARANTEED

please call (888) 516-2291 or visit us at www.SaeArc.com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마이스티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티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위치-미리 콘도 상가 2층 일서+웨스턴 코너

파사데나장로교회 10주년 감사예배 드려

“다문화 공동체 표방해 온 10년... 하나님 칭찬 있을 것” 타민족들 축하 이어져



파사데나장로교회가 10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30일 드렸다.

파사데나장로교회(성현경 목사)가 10주년 감사예배를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드렸다. 이날 예배는 환영에 성현경 목사, 기도예 김선익 목사(미주서부장로교회), 설교에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축사에 Dr. Mark Smutny(Pasadena Presbyterian Church), Rabbi Robert Bloch(Beth Shalom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 주성영 목사(소망장로교회), 서경남 목사(Wheat Mission),

중보기도에 박정순 목사(새소망장로교회), 축도에 박한선 목사(믿음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하나님의 평가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한 고태형 목사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며 “사울이 망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지난 10년간 다문화 공동체를 표방하고 여러 민족에게 교회 문을 연 이 회중을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다”라며 “향후 10년도 늘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사데나장로교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샌디에고 한빛교회 정수일 목사를 초청해 “다시 교회를 생각하라”는 주제로 말씀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강순영 목사 특별 기고 |

미국 대부흥의 역사 한인들의 동참으로

로즈볼11.11 대회에 한인들이 참여 절실히 요구돼

우리가 살고 있는 LA는 아름다운 “천사의 도시”다. 스페인 신부에 의해 The Angels라는 뜻을 가진 Los Angeles로 이름 지어졌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메시지의 전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할 사명을 가진 도시가 아닐까 싶다.

LA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태평양 시대의 중심 도시이며 15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150개 나라 이상의 이민 1세대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할리우드를 통해 세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갈보리채플, 새들백교회,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수정교회 등 전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들이 LA 인근에 있으며 가장 큰 해외 교포 교회들이 LA에 있다.

LA는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답게 세계를 변화시켰던 부흥 운동과 영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이기도 하다. 1906년에는 성경은사운동인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일어나 근대 세계 부흥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49년에는 30세의 전도자 빌리 그래함이 이끄는 전도대회에 8주 동안 35만명이 모이면서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대형 집회로 탄생시켰다.

1952년에는 UCLA에서 Bill Bright 박사에 의해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CCC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포커스온더패밀리, 네비게이터 선교회, YWAM이 남가주에서 태동했고 오늘날 한인 젊은이들을 통해 미국을 깨우는 JAMA 운동도 1993년 LA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계 유통되는 성인 영화의 70% 이상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 세계를 타락시키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동성애, 동성 결혼에 앞장서고 있고 할리우드는 폭력 영화를 만들어 전세계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어 몇몇 기도하는 크리스천 예언자들은 LA 대제국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동안 LA의 대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던 목사님들에 의해 2011년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파사데나에 있는 로즈볼에서 10만 명 규모의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다.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에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윌리엄 세무어 목사와 찰스 파함 목사는 약 100년 후 아주사 부흥을 능가하는 강력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5년 전 부흥사인 척 피어스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첫 부흥이 백인 청교도에 의해서, 100년 전 아주사 대부흥이 흑인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이민자 교회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우리 교회의 매주 금요일 밤 첫 기도 제목이 이 땅의 부흥이며, JAMA에서는 그동안 16회의 중보기도 컨퍼런스, 10회의 JAMA 대회를 통해 그리고 김춘근 교수님의 190년 전 국가도순회를 통해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다. 또 미국의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 왔다.

또한 오렌지카운티의 2개의 한인 대형교회에서 100일, 40일 밤, 이 땅의 부흥을 위해 회개하는 대규모의 기도회를 가졌고 이 불길을 전미주로 전달하고 있다.

기도하며 버라기는 이번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부흥을 사모하며 열리는 로즈볼 기도회에 LA 인근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2세대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에 의해 대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함으로 전세계를 휩쓸 대부흥을 보고 싶다. 주회측에서도 한인교회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오후 6시 15분부터 8시 15분까지 2시간 기도 인도를 의뢰해 왔다.

아멘, 주 예수여 대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 나라의 오너십을 가지고 이 나라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게 하소서.

남가주 새언약교회 창립예배 드려

강양규 담임목사 “하나님 마음이 담긴 교회 이룰 것”

LA 한인타운 8가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의 창립예배가 30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4시에 있었다.

미주 예성총회 서부지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강양규 목사의 사화로 진행되었으며, 김은광 목사의 기도와 오직예수초대교회 찬양팀, 성결대학교 동문회 그리고 강정윤 목사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방회장이 최한오 목사가 “적당하게 주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한오 목사는 “하

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알맞게 주신다”고 말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적당하게 주실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 주님이 세우신 남가주 새언약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창립식에서는 김재용 목사와 이윤수 목사가 축사의 말씀을 전했다. 성성용 목사와 박용덕 목사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는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미 동부와 중부 그리고 시애틀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 왔다.

이날 남가주 새언약교회의 담임인 강양규 목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다가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만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213-434-1083

토마스 맹 기자

Yes교회 싱가음악회 개최



지난 2일에 새성전 헌당예배를 가졌던 Yes교회(예수님의 스토리)가 21주년을 기념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Yes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가 이민시 시인의 주옥같은 시에 곡을 붙여 노래가 된 ‘하늘의 노래’가 소프라노 최창경, 김숙영, 테너 최왕성, 정병화, 복음가수 에미리, 작곡가 노진규 등의 참여 가운데 아름답게 연주됐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새언약교회는 지난 30일 종교개혁주일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차,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2011년~2012년 겨울계절학기 신입생 모집〉

수료 프로그램 과정 Certificate Program Course	코드 course code	과 목 명 Course Title	담당교수 Professor/Instructor	기 강 Course Period	시 강 Class Hour
크리스천 가정 상담 Christian Family Counseling	CFC101	성서적 상담의 기초 Foundations of Biblical Counseling	피터 강 Ph.D.	2011. 12. 19(월) ~ 12. 23(금)	오전 9:00 ~ 오후 5:00
	CFC102	위기관리 상담 Crisis Management Counseling	권오균 Ph.D.	2012. 1. 23(월) ~ 1. 27(금)	
이민교의 가정 사역 Immigrant Church Family Ministry	FM101	가정 사역의 성서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of Family Ministry	이상명 Ph.D.	2011. 12. 19(월) ~ 12. 23(금)	
	FM102	목회상담과 돌봄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크리스티나 강 Ph.D.	2012. 1. 23(월) ~ 1. 27(금)	

*학점인정: 수료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가운데 본교 학위 프로그램(B.Th., M.Div.)으로 입학할 경우 최대 9학점(3과목에 해당)을 인정해 줌.

과 정 Degree Program	코드 Course Code	과 목 명 Course Title	담당교수 Professor/Instructor	주/야강 Day/Night	기 강 Course Period
Th.B.	TH313 필수	기독교 영성 Christian Spirituality	최철 Ph.D. (C.)	야간	2012. 1. 9(월) ~ 1. 20(금)
Th.B.	OT202 필수	선지서 Prophets	김성익 Ph.D. (C.)	주간	2012. 1. 9(월) ~ 1. 13(금)
Th.B.	TH205 필수	해석학 Hermeneutics	이상명 Ph.D.	주간	2012. 1. 16(월) ~ 1. 20(금)
M.Div.	ST561 필수	미 원주민 선교 American Indian Mission	안병호 Th.M.	주간	2012. 1. 9(월) ~ 1. 13(금)
M.Div.	MI572 선택	목회상담의 실제 Practicum of Pastoral Counseling	강피터 Ph.D.	주간	2012. 1. 16(월) ~ 1. 20(금)
M.Div.	PT606 선택	설교연습 Preaching Practicum	계지영 Ph.D.	야간	2012. 1. 16(월) ~ 1. 27(금)
M.Div.	PT602 필수	종교개혁 신학사상 Theological Thoughts of Reformation	한성찬 D. Theol.	주간	2012. 1. 23(월) ~ 1. 27(금)

* 위 시간표는 감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시간: (1) 주간반(1주강): 오전 9:00~12:00, (점심: 12:00~1:00), 오후 1:00~5:00 / (2) 야간반(2주강): 오후 7:30~11:00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 www.pts.edu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1-10



장재효
서울성은교회 목사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에게도 거리가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힘쓰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것으로 허락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기중심에 모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늘 승리를 보장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생활은 육신이 세상 쪽으로 원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여러모양으로 어려움을 치루기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중심으로 소원을 삼고 힘쓰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는 노력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뉘그러나가지 세상을 바라보고 허욕을 따라 헛되고 정욕으로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령을 받아 모시기 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며, 성령의 인치신 은혜와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일삼고 지옥 길을 재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날의 생활 속에서도 죄 값은 지체없이 찾아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과 절망,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또 죽음이란 진리를 두려움에 계속 괴롭히며 죽어도 죄 값이 남아 유황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 시달리게 될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사는 목적과 방법도 바꾸기 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본능의 욕구를 따라 개, 돼지처럼 온갖 죄악에 찌들려 상하며 지옥 길을 재촉하며 잘못 살았던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날의 인간 죄인과의 나쁜 심자가 에 못 박혀 죽었고 그것을 목숨에 장례 치루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

로마서 6:2-6에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해서 성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릇으로, 지체로 사용하 주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님이 부임해 오셔서 첫 설교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묻는 기도를 드렸더니 요한복음 3:1-8까지 하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애타게 설교를 하고는 그날 저녁에 때도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거듭나야 함'이란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도 또다시 지난번 했던 설교 내용으로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수고터거리를 "저 목사가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거듭나는 것 밖에 안배우셨나 보다"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었는데 집사들은 그 장로님께 목사가님이 거듭나에 대한 설교밖에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설교는 있었으니 다른 설교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식사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계속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만 하시니까 교인들이 지겨워합니다. 목사가님이 그 설교밖에 못하는 줄 아니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설교를 해 줄 수 없겠습니까?"했더니 목사가님이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하나님께 여쭙봐야죠"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목사가님이 교인들은 밖에 나서 다른 목사를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째 같은 설교를 하던 중 제직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중에 여전도회장이 목사님께 "우리 교회 수준이 아직 유치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밖에 안보이십니까? 아니면 목사가님이 설교를 그전밖에 할 줄 모르는 건가요?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는 지겨워서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곳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는 주일 또 그 설교를 하시면 목사가님 그만두시던가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고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전도회장은 그 회원들과 함께 밤마다 모여 목사가님이 다른 설교를 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번 주 설교도 똑같은 본문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같은 설교를 그토록 들어왔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여전도회장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달이 지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려는 목사를 막고 그간에 자신들이 너무나 교만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3절과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직책을 얻어 영혼이 회개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며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전혀 궤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무엇에든지 거러가지 않게 하고 전혀 약점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들은 말려진 양떼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들을 견디고 환란, 공핍, 곤란, 매 및 망신당하며, 재대로 잠도 못하고 끼니를 찾아 먹지도 못하더라도 자신의 영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며 오래 참고 견디면서 육하고 할뜰고 해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그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도우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말려진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잘못되던 야단도 치고 벌도 주고 또 연약한 심령은 호소하고 달래고 권면하면서 기어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해 주려고 책임목회의 사명에 자기 생애를 쏟아 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때론 감정도 상하고 오기와 헛기가 솟아날 수도 있지만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의름께 쓰실 도구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영광의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들을 때도 있으며 아름다운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 "심일조를 온전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창고가 쌓아 둘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주신다"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믿어지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넘치도록 야만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목사가 돈 내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목사가 속이는 자같이 생각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세상적 욕심을 채우는 목사와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23:1-2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말하며 흠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흠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으면 하늘소망의 확실한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거듭난 이유이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더니 실패했고, 또 다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아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위탁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려고 회개도 했고 거듭나기도 했다면 지금쯤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거는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걱정할 필요

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은 우리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몸소 치루시면서 죄인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고, 고맙고, 황송무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그 은혜 보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들이 환날 기회를 엿보며 울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이고자 하나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씨개로 써서 그 모든 사망의 울무를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며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환란을 겪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환란과 핍박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를 통하여 은혜받기는 영 틀러버린 것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12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했습니다. 세상은 마귀소굴이어서 더 돋보이는 믿음으로 살고 더 잘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더 큰 환란과 핍박과 고통과 궤방을 당하게 마련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사가 잘못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양떼들도 그를 본보기 삼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하여 더욱 애쓰며 살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일도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깨끗한 믿음 지키는 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는 것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은 목사 자신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23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그분께 요긴한 존재들로 기대 거시고 크게 쓰실 계획이 남아있는 양떼가 되어 질 수만 있다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신문설교 선교

한국	CBS TV 수요일 오후 8:40 / CTS TV 금요일 오전 6:00 /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문
미국	워싱턴 D.C. CBS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8:00 워싱턴 D.C. COX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12:00 토요일 오전 7:00, 주일 오후 10:3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30, (동부) 오후 6:30 토요일 (서부) 오후 6:00, (동부) 오후 9:00 AM 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AM 1590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월요일 오전 11:20-11:50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 설교

※ YouTube 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 동영상 설교를 선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장재효 목사 :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선목회 회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전국기독총연합회 총재.

웨이스 기독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SEVIS
I-20
상담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학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컬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Lee University
 - Oral Roberts University
 - 통신강의 (아카데미컬 학위취득)
 - Indian University
 - Liberty University
 -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매달학생회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신학 Ph.D	64		
	상담학 Ph. D.	64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수시접수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국제적 관심만이 나다르카니 목사 구할 수 있다”

11월 초 최종 판결까지 기도와 여론 형성 요청

이란에서 사형의 위협에 놓여 있는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구명을 위해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로 되고 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지난 2009년 강제 이슬람 교육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배교죄와 무슬림 개종 시도로 혐의가 바뀌었고 이로 인해 길란(Gilan)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나다르카니 목사는 2010년 대법원에 항소했고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아온 뒤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메네이는 이란 사법권을 쥐고 있는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외신들은 11월 초까지는 나다르카니 목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보도했다.

미국법과정의센터(ACLI) 조던 시컬로우 총무는 “이란 법원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다르카니 목사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나다르카니 목사의 구명을 위해



나다르카니 목사

해야 할 일은 기도 외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에 이란이 종교 박해를 멈추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다르카니 목사의 사건이 쉽잖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

해 감시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에 따르면 수감된 나다르카니에 대한 개종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간수들과 당국자들은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슬람 사적을 강제로 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CSW는 이란에 나다르카니 목사와 같은 이유로 수감된 기독교인들이 더 많으며, “이란 법원과 당국자들이 기독교 활동을 국가보안에 반대되는 활동으로 규정짓는 성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현정 기자

수정교회 드디어 매각 채프먼대학교가 인수

예배당은 교회 측이 임대해 사용



수정교회의 모습

미국 수정교회와 채프먼대학교(Chapman University)에 매각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정교회 파산대책위원회는 채프먼대학교에 5천만 달러에 40에이커 가량의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채프먼대학교는 임대 방식으로 수정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요 건물들을 원할시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했다.

채프먼대학교는 “우리는 우리 대학교를 매입자로 선택한 교회의 결정에 기쁨을 표한다. 수정교회의 편의를 도우면서 또한 대학교의 건강과학 프로그램을 확 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교회 창립자인 로버트 H. 슈러

목사는 “모든 채권자들이 이로 인해 지분을 받게 될 것이며 수정교회의 사역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개혁교회(RCA)에 속한 수정교회는 미국 최초의 대형교회로서 사람이 유리로 둘러싸인 예배당과 전 세계 수많은 복음주의 시청자들을 거느린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이 방송되는 장소로 유명하다. 그러나 2006년 로버트 H. 슈러 목사 은퇴 이후 자녀들 간의 담임 목사직 승계 다툼으로 교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결국 작년 10월 파산 신청을 했다.

한편 로렌지 카운티 가톨릭 교구 역시 매각을 원하면서 강력한 매입자 후보로 알려졌다. 결국 교회 파산대책위원회는 채프먼대학교를 선택했다.

순현정 기자

교회 사유화, 목사 임기제와 재정 투명화로 방지

한목협 포럼서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기조발제

“개혁 후 6-7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하자 책을 내자는 의뢰가 들어 왔어요. 저도 ‘책 한 권 내는 게 어 때라’ 싶어 이 얘기를 교역자 회의에서 했더니, 아프간에서 순교한 배형규 목사가 그래요. ‘이제 6-7년 지났고, 우리는 아직 모든 게 실험 중인데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고 책을 내어야 되겠냐고요. 물론 20년 넘게 함께 했던 사람이었지만, 사역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속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교개혁 494주년을 기념해 한국 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전병금 목사, 이하 한목협)가 제20차 열린대학마당 ‘교회 사유화, 그 대안을 모색한다’를 25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기조발제에는 2007년 아프간 사태를 겪었던 박은조 목사(분당샘물교회)가 나섰고, 토론은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차우열 목사(상록수성결교회) 등이 맡았다. 부임 14년째인 내년 분당샘물교회에서 ‘은퇴’가 아니라 ‘퇴임’하는 박은조 목사는 13년간의 샘물교회 과정을 담담히 풀어 놓았다.

전병금 대표회장은 발표에 앞서 “교회 사유화는 건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결단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안을 찾기로 했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은조 목사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13년 동안 사역 현장에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씨름했던 경험을 나누기 원한다”며 “샘물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의 주인이 개혁 목사도, 한

금을 많이 한 장로도,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일심을 고백하게 하셨다”고 언급했다.

강남 지역(서울영동교회)에서 안정적인 목회생활을 하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200여명의 성도들과 분당에서 개척을 시작한 박 목사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있고 돈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리라 생각해 돈과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며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고쳐서 두고 준비시키는 일이 먼저였다”고 회고했다.

개척을 결심한 후 한시도 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박 목사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하시고 도전하셨던 것.

그는 안식년 동안 미국을 돌며 준비했던 개척 파일을 뒤었다. 그는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도 거두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 교회를 세우겠다고 고백했다”며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원리를 따라 갈 것을 다짐하며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이후 개척교회 이름 정하기부터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 재정의 투명한 공개 등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노력했다. 교회 이름은 성도들의 투표로 뽑았고, 목사는 6년, 장로는 5년 사역 후 신임을 묻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도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현금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 목사는 “재정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며 “또 교회가 커지면 목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은조 목사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임기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수평이동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 4천여 명이 출석하던 2006년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누군가서 질문하셨는데, 놀랍게도 조사해 보니 10% 남짓이었다”며 “하나님께 참 초췌했고, 수평이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2007년 초부터 가정교회 소그룹 운동을 시작했고, 회심, 성장하는 교회의 꿈을 새롭게 품었다”고 설명했다.

퇴임과 담임목사 청빙도 ‘힘 빼기’의 과정이었다. 박 목사는 “제2대 담임목사 청빙을 두고 기도하면서 ‘샘물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임목사인 바로 나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어느 날 주께서 ‘새로 부임하는 목사와 일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장로들이요 성도들이다’는 생각을 주셔서 당회에 보고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맡겼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올해 초부터 진행된 제 2대 담임목사 청빙은 본인의 수락까지 받은 상태이며 공동의회만 남겨두고 있다.

박은조 목사는 “교회는 이상적이고 장로는 현실적이어서 서로 절충하면 되는데, 저는 ‘장로님들께서 제 의견에 더 많이 따라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주 말한다’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빚어놓으셨다”고 고백했다. 이후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대웅 기자

“리비아 위한 세계적 기도운동 일어나야”

리비아의 미래를 위해서 전 세계적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한 아랍 선교 지도자가 희망했다. 아랍 월드 미니스트리즈(AWM)의 데이빗 인스는 포스트 카다피 정권 수립을 앞둔 리비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기도가 필요로 된다고 주장하며 말했다.

그는 카다피 사망 이후 아랍 선교 지도자들 간에 리비아의 미래에 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교회들에서 리비아를 위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밝힌 그는, 먼저 새 리비아 정부는 리비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의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리비아의 기독교인들이 헌법상 종교자유를 보장받으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 역시 권했다.

리비아의 기독교인 수는 수천에서부터 15만여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그는 ‘아랍의 봄’ 기간 아랍 국가들에서 이슬람 세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우려하면서도, 과도기적인 시기가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교회의 성장을 보고 있고 한 번 열린 이 문은 많은 열매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오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굳건하게 믿을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순현정 기자

휴거 예언 해롤드 캠핑 “내 행동 잘못, 사과한다”

지난 10월 21일 휴거 예언 실패를 끝으로 근 20년간 주장해 왔던 자신의 시한부 종말론이 틀렸음을 시인한 해롤드 캠핑이 회개와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기독교 계열의 라디오 방송사 패밀리라디오 창립자인 캠핑은 지난 1992년부터 자신이 성경을 통해 대홍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 재림 등의 사건들의 날짜를 계속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에 따라 1994년 9월 6일을 휴거의 날로 예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21일, 10월 21일을 각각 영적 휴거와 실질적 휴거의 날로 예언했지만 모두 빗나갔음을 얼마 전 시인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28일 캠핑은 패밀리라디오를 통한 성명에서 “중증자들을 잘못 이끌어 왔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캠핑의 예언을 믿은 미국과 세계의 많은 추종자들이 직장,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혼하고, 자살하는 등의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었다. 캠핑은 지난 5월 21일 예언 실패 당시 이같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자, “마음은 아프지만 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 성명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항상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며 “나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는 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캠핑은 얼마 전 패밀리라디오 대표에서 물러났으며, 패밀리라디오는 10월 21일 이후로 캠핑의 예언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다.

순현정 기자

창립33주년을 맞이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가주노회 소속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1)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이거나 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이민 목회 경력이 3년 이상된 목사(부교역자 경력포함)
3)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가능하신 분
4) 연령은 39세 - 45세 사이

제출서류: 1) 이력서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2) 본인 및 가족사진 6) 목사 2인 추천서
3) 목회 비전서 7) 최근 설교 2편(CD)
4) 목사 안수증명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출기한: 2011년 11월 4일(금)까지

제출하실 곳: 청빙위원회 앞
1821 Alta Vista Place, Camarillo, CA, 93012
혹은 E-Mail : ahnfamily1821@aol.com

문의: 임진태목사 (805)816-2373

HTTP://WWW.VCKPC.COM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1월 7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앞선하며 청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턴)

미주 최대의 진주전문 업체  Kobe Pearl LAS VEGAS

장기불황타개 긴급제안!!

스페셜 진주 비드 특가 BIG3 인기폭발!!!

 reg. \$499 \$99 진주 비드 목걸이 (7mm - 7.5mm)	 reg. \$1499 \$259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 (7mm - 7.5mm)	 reg. \$1599 \$299 진주 비드 목걸이 (8mm - 8.5mm)
---	---	---

2011년 결산 진주보석 최고 80% 세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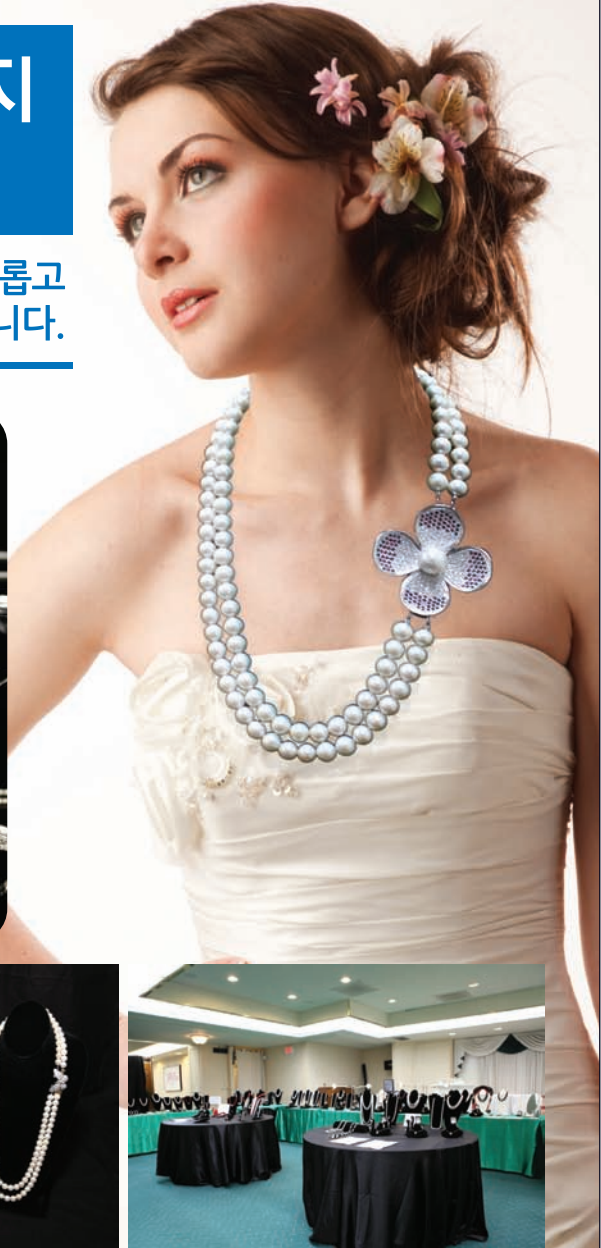


홍산호와 인공핵진주등 4000여점 전시판매



진주반지 신제품 대거출시

최고급 진주반지와 핵진주반지가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색보석도 고베펠이 만들면 다릅니다"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등 유색 보석 **50%에서 70%**까지 특별 세일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 행사 특성상 특정 인기 행사 품목은 품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행사 장소에서는 제품의 수리 및 AS를 하지 않습니다. 수리 및 AS는 본사의 고베펠 본사 702,282,554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베펠 진주 보석쇼 행사 일정안내 안내전화 213.703.5187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kobepearl.com 블로그참조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안내]
 행사일시: 2011년 11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4일간
 행사장소: 로텍스호텔 Rotex Hotel 2층 뱅킷룸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과 그래머시)

[부에나파크 행사안내]
 행사일시: 2011년 11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2일간
 행사장소: 홀리데이 인 Holiday Inn - Buena Park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1층 가든1룸 Garden 1 Room (1st Level)

한국 신학교수 10명 중 9명 해외파

총신·장신·감신·서울신대 등 주요 신학대 분석 총신-웨스트민스터, 장신-프린스턴 출신 가장 많아

한국내 주요 신학대 교수 10명 중 9명 이상은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0명 중 4~5명은 신학대가 아닌 4년제 일반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총신대학교(총신대)와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 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대) 등 각 교단의 대표 신학대 교수 168명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157명(93.5%)이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중 미국 유학파(71명)가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 보면 총신대는 신학 관련 교수 49명 중 48명이, 장신대는 45명 중 43명이 해외파였다. 감신대는 33명 중 32명, 서울신대는 41명 중 34명이 그랬다. 서울신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국내파 교수들은 모두 재직 중인 학교의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 교수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해외의 신학교는 총신대의 경우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리니티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는 5명이었는데 모두 선교 전공이었다.

장신대는 미국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튀빙엔(Tubingen) 신학교와 미국 풀러 신학교 출신이 4명, 감신대는 미국 드루(Drew) 신학교와 에모리(Emory) 신학교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신대 역시 미국 드루(Drew) 신학교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총신·장신은 일반대, 감신·서울신대는 신학대 출신 압도적

학사 학위의 경우, 신학을 전공하

지 않은 이들이 상당수(82명)였다. 이들 중에는 서울대(16명)와 연세대(3명), 고려대(6명) 등 고학력자들은 물론, 화학과 공학 등 다양한 전공 출신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재미있는 점은 총신대와 장신대는 해당 학교 학부 출신 교수들보다 일반대학 학부 출신 교수들이 더 많았지만 감신대와 서울신대는 정반대였다. 총신대는 총신대 학부를 나온 교수가 18명이었고 일반대학 학부 출신 교수가 29명이었다. 장신대도 이 비율이 10:34로 일반대학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감신대는 감신대 학부 출신 교수가 25명으로 7명인 일반대학 학부 출신 교수 숫자를 크게 앞질렀다. 서울신대 역시 26:12로 서울신대 학부 출신 교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



국내 주요 신학교 교수들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신학대가 아닌 일반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해외 신학교의 졸업식 장면

의 숫자는 장신대가 11명(서울대 9, 연세대1, 고려대 1), 총신대가 9명(서울대 4, 연세대 1, 고려대 4), 서울신대가 4명(서울대 3, 연세대 1), 감신대 1명(고려대 1) 순이었다.

신학대 한 관계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는 게 교수 임용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 신학의

다양성과 깊이 등에서 해외 신학대가 훨씬 앞서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각 학교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해외 신학교도 다르다. 한 학교에 특정 해외 신학교 출신 교수들이 많다보면 자연스레 후배 교수들도 역시 그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대학 학부

출신 교수들이 주로 총신대와 장신대에 몰려 있는 이유에 대해선 "장로교 교세가 큰 한국교회의 특징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며 "서울대와 연세대 등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 이들 학교에 많은 것을 보면 학교 규모와 보수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루터의 로마서 읽고 회심한 웨슬리, 갈라디아서는...

서울신대 종교개혁 기념강좌 '웨슬리안 신학과 종교개혁'

"대륙 종교개혁의 여러 줄기와 웨슬리를 비교해 보면, 웨슬리에 대한 해석을 주도했던 대중적인 신화는 깨지게 된다. 이 과정이 웨슬리안 전통과 성경 전통 이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길 희망한다."

종교개혁 주관을 맞아 웨슬리 전통을 이어받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25일 '웨슬리안 신학과 종교개혁'을 주제로 제494주년 종교개혁 기념강좌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청된 도널드 W. 데이튼 교수는 갈라디의 창시자이자 성경교의 뿌리인 웨슬리의 신학을 마틴 루터로부터 나온 루터란 운동, 존 칼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혁주의 운동, '급진적인 인물'들에 의해 시작된 재세례파 운동 등 3가지 종교개혁 중심운동과 비교했다.

데이튼 교수의 이같은 발표는 웨슬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를 재발견한 루터란이며, 존 칼빈으로부터 이어지는 개혁주의에는 강력한 반대자였고, '재세례파'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급진파와 별 관련이 없다고 보는 통념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 문제를 탐구하는 일은 웨슬리 신학의 윤곽을 파악하는 탁월한 길"이라며 "결론적으로 웨슬리는 루터와 달랐고, 오히려 칼빈과 재세례파와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웨슬리가 루터를 따랐다는 인상은 그 유명한 웨슬리의 '올더스 게이트 회심', 즉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진 사건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데이튼 교수는 "루터와 웨슬리의 일관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서문이 루터의 저작들 중 매우 특이한 작품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며 "로마서 주석은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선호했고, 그들이 루터에서 벗어났다는 정통주의의 비판에 논쟁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웨슬리는 루터의 핵심 저술인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은 후 자

신인 루터와 너무나 닮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고, 올더스게이트 체험에 근거해 루터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어떻게 되돌릴지 무척 고민했다고 한다. 웨슬리는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이 '운동 신비주의적 색채'였다고 했는데,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 해석이 쉽지 않다. 데이튼 교수는 이에 대해 "웨슬리는 '올버무용론' 관점을 언급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추측했다.

웨슬리와 루터의 차이점은 야고보서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며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결핍된 책으로 봤지만, 웨슬리는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버리라는 권면', '마귀 자신은 정통주의이지만 진정한 심령의 종교에서는 멀다는 주장', '기만한 사람들에 대한 호' 등 독특한 주제를 많이 찾아냈다.

데이튼 교수는 "루터는 '믿음 아니면 선행'이 대표하듯 분리적 성향이 강

하지만, 웨슬리는 '믿음과 선행' 등으로 둘 모두를 결합해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둘의 차이점은 대중적인 사고방식에 뿌리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데이튼 교수는 그러나 웨슬리와 루터의 관계를 '상호간의 교정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루터주의는 비윤리적·수동적·비규율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웨슬리안은 율법주의·은혜무용론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종교개혁에는 웨슬리라는 '교정자'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이 둘의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지만, 두 운동이 서로 긴장 안에서 사는 방법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빈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은 웨슬리를 '이중예정',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칼빈주의의 냉혹한 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웨슬리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은 반대했지만,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주장



25일 열린 서울신대 100주년 기념 종교개혁 기념강좌 모습

했다. 그는 "칼빈과 웨슬리 모두는 은혜의 필연성과 하나님의 주도적 활동에 대해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다만 그 은혜의 성격과 특성이 달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튼 교수는 "웨슬리는 웨슬리안과 칼빈주의 사교의 근본적인 친밀함을 알았다"며 "그는 후에 이 친밀함의 감각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지만, 종종 자신의 생각을 '칼빈주의의 가장자리', '칼빈주의와 머리카락 정도의 차이'라 묘사하기도 했다"고 정리했다. 웨슬리 이후 칼빈주의에 대한 해석을 주도한 대중적인 신화는 깨지게 된다"며 "이 과정이 웨슬리안과 성경 전통의 이해를 위한 성경적 차이보다는 '한 가족의 결핵'이라는 표시인 경우가 종종 있다"며 "차이와 분리의 감각은 중요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역사로 이끌곤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해석자들이 웨슬리를 분석하면서 재세례파를 생각하지는 않

지만, 데이튼 교수는 이것이 재세례파를 주로 유아세례 반대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측면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논증했다. 그에 따르면 웨슬리는 경건주의의 과격파라 할 수 있는 고트프리트 아놀드를 좋아했고, 종종 전통적인 기독교에 반대한 성 프란시스코 예언적·은사주의적 몬타누스 같은 반항가에게 편한 함을 느꼈다.

데이튼 교수는 강연을 마치며 "대륙 종교개혁의 여러 줄기와 웨슬리의 관련에 대한 조망으로, 그의 사상에 대한 해석을 주도한 대중적인 신화는 깨지게 된다"며 "이 과정이 웨슬리안과 성경 전통의 이해를 위한 성경적 차이보다는 '한 가족의 결핵'이라는 표시인 경우가 종종 있다"며 "차이와 분리의 감각은 중요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역사로 이끌곤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해석자들이 웨슬리를 분석하면서 재세례파를 생각하지는 않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 ESL 프로그램
- 한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듣는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shure mx418/c / 18" 경대상 마이크 \$199.00	earth work Cardiod 경대상 마이크 FM500 / 19in \$499.00 FM720 / 27in \$499.00	shure Cardioid 무선 썬 마이크 WL184 : 115 degree \$106.00 WL185 : 130 degree \$107.00	shure ppx24/sm58/무선마이크 엘드 타임 세트 \$399.00	sennheiser 유선 마이크 e835 three pack \$229.95 e835 single Handheld mic \$83.00	Roland KC-350 4-Channel 120W Stereo Mixing Keyboard Amplifier \$499.00	countryman E6i Directional earset 무선 이어셋 마이크 \$449.00
Roland TD-4KX2-S V-drum \$1,499.00	Keyboard instrument cable \$4.99 ea \$39.99 wth 10ea	bose ds16f / 천장 스피커 \$79.00	superlux hd661 / 헤드셋 헤드폰 \$49.00	ebtech HE-2-XLR (HUM ELIMINATOR) (2 ch box w/XLR) 엘/노이즈 제거기 \$64.99	sabin fbx1020 FBX Feedback Extremators: 피드백 제거기 \$329.99	hosa cable MKK-025AU / 25ft 마이크로 케이블 \$29.99
Sanyo PLC-XL4000 / 4000 Ansi 프로젝터 \$1,098.00	Benq SP-920P / 6000Ansi 프로젝터 \$2,999.00	Dalite Portable 100" Screen 90618 이동용 100인치 스크린 \$199.00	Monoprice 25R VGA Cable / 프로젝터용 컴퓨터 케이블 \$15.00	Monoprice MH-20 / 프로젝터 마운트 \$47.00	Telex SM-2 Telex SM-2 - Personal Listening System - A (set of 4 users) 동시통화기 세트(4인 기준) Call for Price	beringer f1220A Power Monitor / 파워 모니터 스피커 Active Monitor, EQ and volume. 125W \$217.99
PEAK Music Stand / 보편대 \$34.99	whirwind Director / DI-BOX \$61.02	American DJ PAR CAN 56 Combo / 조명 파넬 콤보 키트 \$59.95	PM PBC-UMS / universal 프로젝터 마운트 \$179.00	Elation ELED DW PAR 56 / LED 조명 \$369.00	Elation DLED 36 TriBrick / LED 조명 \$499.00	Ushio 조명 램프 for Source4 & Opti Par HPL 120V-750WX \$23.00 HPL 120V-575WX \$23.00 HPL 120V-375WX \$23.00 HX601 115V-575WBM \$25.00
Yamaha DXPRV V-Drum \$899.00	Yamaha S90XS Keyboard \$2,299.00	Yamaha MotiXF7 76-key FSX action with initial and aftertouch \$2,999.00	Behringer XENYX X1204USB 12-Channel USB Mixer with Effect \$196.99	Behringer XENYX 1204 \$98.99	Edrol V-4 Video Mixer \$1174.95	Projector Lamp REPLACE Projector Lamp, Sanyo, Sony, Eki, Panasonic, etc... Call for Price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국제기독교유아교육대학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11월 7일
 (2주마다 입학가능)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 www.icecusa.com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경건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새 시대를 여는 토요일 BIBLE 집회

-서승원 박사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구번역문(聖句翻譯文)-

הָאֵלֹהִים יִפְתָּח לִּי אָזְנוֹ וְאֶבְיֹנִי אֶפְתָּח וְאֶבְיֹנִי אֶפְתָּח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의 놀라운 것들을 보리이다(시 119:19).
 γνώσεσθε τὴν ἀλήθειαν, καὶ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υμᾶς.
 진리를 알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단조로운 신학강좌나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첫 작품인 "빛이 있으라" (창1:3)는 말씀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빛과 말씀의 황금광맥을 찾는 광부의 심정으로 드릴(Drill)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과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L.A.의 신학대학 학장이신 서승원 박사님은 13년간 그리스에서 회람철학을 연구하였고, 미국의 Claremont 대학에서 신.구약을 전공하면서 교수들에게 회람어와 회람사상, 호머와 고전 그리고 성경 원전연구를 지도했습니다. 이 분의 설교와 성경 강해는 해박한 지식과 넘치는 영감의 결집체로 지적 충족과 함께 새로운 영적세계의 길로 안내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신앙의 회의나 깊은 진리를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총 장 아브라함 K. 리 / 부총장 아모스 H. 안

장소: Francis Chapel /프랜시스 채플 (The First Baptist Church of L.A.)내
 (주차장 완비: 8가 + 웨스트모어랜드)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일시: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8시 30
 전화: (213)610-4989 / (213)293-5745



서승원 목사 (Ph. D.)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
 그리스 아테네 국립대학교 회람철학 전공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신약, 구약 전공
 서울대 교수 역임 / 다년간 철학, 신학, 회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강의
 현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LA 신학대학 학장
 전화: (213)386-6632



Teaching & Mission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LA

A LINE IN THE SAND

A line in the Sand (모래 위에 최후의 선): 최후의 영적 배수진을 치고 연합하여 영적 승리를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1,200여 한인교회들과 모든 단체들이 미국 교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전 민족연합기도회에 오너쉽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영적 한류를 일으켜갑시다!

미국은 우리 삶의 터전이요 사역지요 우리 자녀들이 뼈를 묻을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나라인 미국을 위해 우리 민족이 일어설 때입니다. 장년들 뿐 아니라 대학생 중고등학생 유년부 유치부 산모와 노인들까지 역사의 현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날에 우리도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LA 캘리포니아 미국의 무너져가는 도덕적 부패 회복, 영적 부흥을 위한

10만명 다민족 11/11/11 로즈볼

연합기도회



성화장로교회(강영석목사) / 세계주빌리교회(강은덕목사) / 하나로커뮤니티교회(강일웅목사) / 한양장로교회(강일준목사) /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목사) /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강진웅목사) / 뉴호프교회(강태영목사) / 남가주사랑의교회(고석찬선임목사) / 아름다운교회(고승희목사) /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목사) / 예은장로교회(곽건삼목사) / 갈릴리은교회(구본철목사) / 세계가이페션교회(김요한목사) /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김경섭목사) / 벨리엔트 / 원로목사회회장(김경훈목사) / 사우스베이벨렐장로교회(김관중목사) / 나성제일장로교회(김광삼목사) / 서남교회(김광철목사) / LA사랑의교회(김기삼목사) / 예수가족교회(김남진목사) / 월튼장로교회(김도석목사) / 은혜의방주교회(김동일목사) / 남서울은교회(김문일목사) / 토렌스조은교회(김바울목사) / 복음장로교회(김상덕목사) / 미주서부장로교회(김선익목사) / 나성한인교회(김성민목사) / LA한인연합감리교회(김세현목사) / 감사한인교회(김영길목사) / 중부제일연합감리교회(김영대목사) / 벨리중앙장로교회(김영일목사) / 벨리제일장로교회(김원락목사) / 양의문교회(김원락목사) / 평화교회(김은목목사) /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목사) / 새생명오아시스교회(김일형목사) / 세계비전교회(김재연목사) / 토렌스제일장로교회(김준식목사) / 글로발선교회(김자성목사) /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오목사) / 남가주주둔교회(김현민목사) / 할렘무이한인교회(김형구목사) / 토렌스한인연합감리교회(나영재목사) / 그이름교회(나형길목사)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목사) / 남가주나눔교회(노정도목사) / 홀러튼장로교회(노진걸목사) / 한길교회(노진준목사) / 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목사) / 나성영락교회(림형천목사) / 유나온교회(문병용목사) / 한우리장로교회(문일명목사) / 나침반교회(민경엽목사) / 갈보리새생명교회(민승기목사) / 충현선교회(민중기목사) / 조이헬로십교회(박광철목사) / 가주주님의교회(박상목목사) / 반석감리교회(박상열목사) / 주님새교회(박장순목사) /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목사) / 만남의교회(박성호목사) / 벨리하나로교회(박성호목사) / 인랜드교회(박신철목사) / 남가주빛나리교회(박용덕목사) / 새소망장로교회(박장순목사) / 엘바인누리교회(박중길목사) / 나성열린문교회(박현성목사) / 동양선교회(박형은목사) / 갈보리민음교회(박형택목사) / 남가주헬로십교회(박혜성목사) / 풍성한교회(박효우목사) / 만나교회(박홍길목사) / 베데스다교회(방수민목사) / 베다니한인교회(방수민목사) / 로델장로교회(배명환목사) / 그라나다장로교회(백동훈목사) / 벨렐장로교회(변영익목사) / 나성평화교회(서오석목사) / 새생명중앙교회(서중운목사) / 세리토스동양선교회(석태운목사) / 파사디나장로교회(성경목사) / 남가주동성교회(송병렬목사) / 베델한인교회(손인식목사) / 선한침지기교회(송병주목사) /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송상현목사) / 미주평안교회(송정명목사) /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 삼성장로교회(신원규목사) / 갈보리선교회(심상은목사) / 월서누리교회(안광덕목사) /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목사) / 에버그린선교회(양수철목사) / 월서그리스도교회(양규서목사) /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염영민목사) /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오경환목사) / 오렌지카운티한미교회(오세호목사) / 세계소망교회(오세훈목사) / 성신장로교회(우정영목사) / 은혜와평강교회(유상수목사) / 나성북부교회(유영기목사) / ANC누리교회(유진수목사) / 브림장로교회(윤혁목사) / 브릿지커뮤니티교회(윤덕근목사) / 나성금관교회(윤선식목사) / 로스펠리스연합감리교회(윤일홍목사) / 사랑의동산교회(윤중대목사) / 가나안교회(이철목사) / 오렌지중앙성결교회(이경원목사) / 다우니장로교회(이문영목사) / 세계등대교회(이상남목사) / 연합선교회(이상복목사) / 드림교회(이성현목사) / 푸른목장교회(이준목사) / 한미로교회(이운영목사) / 주사랑선교회(이재근목사) / 벨리서울교회(이정현목사) / 나성서부교회(이정현목사) / 코너스톤교회(이종용목사) / 벨리커뮤니티교회(이준우목사) / 빛과소금교회(이황영목사) /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목사) / LA소망교회(임윤택목사) / 옥스퍼드교회(임의치목사) / 브리지교회(장세정목사) / 새누리교회(장주영목사) / 시티하베스트교회(전두승목사) / 나성남미교회(전병주목사) / 나성교회(정동석목사) / 포도원교회(정영민목사) / 월서연합감리교회(정영희목사) / 올림피아장로교회(정장수목사) / 남가주명성교회(정해진목사) / 사우스베이션교회(조종근목사) / 큰빛감리교회(조현영목사) / 주님의빛교회(주혁목사) / 새생명교회(지성은목사) / 미주양곡교회(지윤덕목사) / 안디옥교회(지윤성목사) /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목사) / 브니엘교회(차승원목사) / 사랑의빛선교회(최혁목사) / 모감사선교회(최경욱목사) / 세계선교회(최운형목사) / 로고스교회(최준호목사) /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목사) / 나성동산감리교회(한기형목사) / 은혜한인교회(한기홍목사) /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 엘바인침례교회(한중수목사) / 벨리중앙연합감리교회(홍중길목사) /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황기호목사) / 들로스교회(황의정목사)

이상은 10월30일까지 참가신청한 교회 명단입니다. 이후 신청한 교회명단은 프로그램에 참가교회로 게재하겠습니다.

일시 2011년 11월 11일 (금-베테란스 데이 공휴일) 오전 11시~저녁 9시
한인 집중참가시간: 6pm~9pm
(한인기도회 인도 6시 15분- 8시 15분까지 2시간 동안 한인 기도 인도 강사들과 순서자 담당)

장소 파사디나 로즈볼 경기장(ROSE BOWL STADIUM)
장소안내: 주소-1001 Rose Bowl Drive, Pasadena, California
● 로즈볼에 오셔서 Gate A 또는 B로 들어오시면 한인들이 주로 모이는 좌석으로 안내되고 통역과 한글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안내: 교회 버스, 밴으로 카풀해 주십시오.(주차비 10불)

참가인원 미국과 해외에서 10만 명 참가예상 (한인 한어권/영어권 10,000명)

한인기도회 인도 강사
박희민목사 / 송정명목사 / 박용덕목사 / 한기홍목사 / 진유철목사
김인식목사 / 박성규목사 / 김영길목사 / 엄영민목사 / 유영기목사
외 120여 참가교회 목사의 연합공동축도

영어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김춘근교수(Dr. John Kim) / 한중수목사 / 박형은목사(Rev. Jim Bob Park)
Rev. Stephen Chong / 최경욱목사 / 김성민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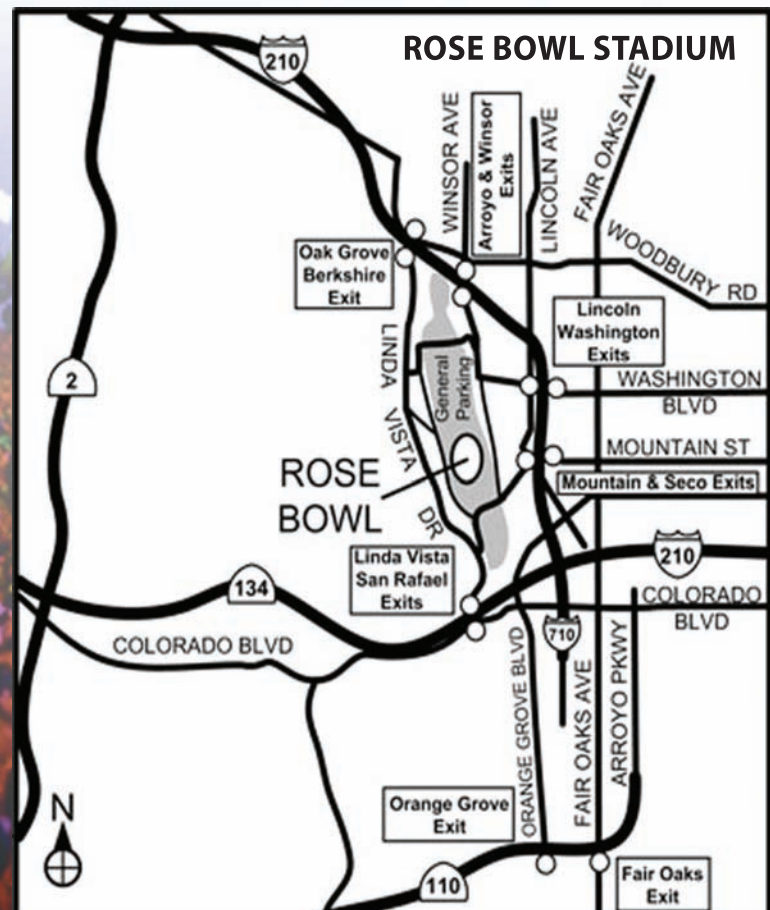
찬양인도: LA 연합찬양팀과 박종술목사

- 교회참여와 참가자 협조 요청 사항**
- 11월 11일 교회 금요 집회를 Rose Bowl 연합기도회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여 전 교회(EM과 전체 교인)가 동참하도록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6일(주일) 주일예배시에 전 교인들에게 Rose Bowl 집회에 대해 광고해 주십시오. 보내 드린 포스터 부착, 전단배부, 합심기도를 해 주시고 참가교회 특별후원헌금도 부탁드립니다. (30초 광고용 동영상은 교회에서 요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150여명의 참가교회 목사님을 기도회 인도 강사와 마지막 연합축도의 강사로 모시길 원합니다.
 - 대회참가비는 없으나 보안을 위해 참가자 전원은 홈페이지 www.rosebowlgathering.info 에서 출입패스를 다운로드 받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준비못하신 분들을 위해 Gate에서 출입패스를 나누어드립니다.

대회를 섬기는 단체들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USA, JAMA, 벨리, 중부, 싸우스베이, 동부, 인랜드 등 캘리포니아지역 교협
300여 명의 KCCC 학생, 교회청년 자원봉사자의 통역, 안내, 주차, 의전

연락처 11/11/11 로즈볼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대표대회장 송정명목사, 준비위원장 변영익목사, 엄영민목사, 실행위원장 이성우목사)
505 S Virgil Ave, #160,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4-5232, Fax:213-384-0055
E-Mail: laholycity@yahoo.com
Pay to: Holycity(11/11/1)

홈페이지 www.holycityusa.org



11.11.2011

213-384-5232 / 626-372-5151

www.RoseBowlGathering.info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에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화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래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어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용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월-목)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4063 Ingraham St LA, CA 90005 (필사미크로중학교가장)
T. (213) 550-7377 / www.lahopecurch.com

LA 만나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영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수) 오전 5:30, 2부: 오전 6:30
(목)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더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명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돌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경(화-토): 오후 8:00
중고등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EM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지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어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찬양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튼 47 Crocker St)
1부기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현오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용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2:30 수요일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청년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roc.com

요셉선교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30(토)
1818 S. Western Ave., suit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포우업)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점오 12:30(분) 금요일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SAM care international
대표: 박세록 장로
'강을 건너 세게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령의 사람들' 이자
www.samcare.org
1309W.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성경의 안전지대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지난 42년 간 리비아를 침권 통치 해 온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가 자신의 고향에서 사망했습니다. 카다피는 자신의 고향인 시르테에 숨어 있었으나, 결국 그곳이 자신의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였고 반정부 세력에 의해 자신의 정권이 전복되고 난 후 약 두 달만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십조의 돈도 수백 대의 차량과 경호원들도 그를 지키지 못했으니, 세상에는 안전지대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통치기간동안 안전지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야를 돌아 다니면서 방향을 하였고, 결국은 골리앗의 나라,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가운데로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기 전의 다윗과 그의 추종자처럼 놀리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시편 12편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전지대란 구원의 장소입니다. 안전한 장소입니다. 변역의 장소입니다. 승리의 장소입니다. “에사”라는 히브리 단어는 “해방하다”, “구원하다”, “전쟁에서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야사”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지대는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는 시대,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 속에도 존재합니다. 경제가 뒤떨리고, 정치가 암울하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는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 의인에게 피난처와 안전지대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SB48(상원법안 48)을 중지시키지 못함으로 이제 킨더거든에서 12학년이 이르는 교과서에 동성애가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가르쳐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미국의 공립학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SB48법안을 정치시킬 수 있는 유효표는 정확히 50만 4760표입니다. 그런데 사인을 받은 유효표는 49만 7404표로서 약 7300표가 모자라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시는 각 교회와 개인들에게 감사사를 드리고, 전면에서 힘써 뛰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한인의 투표참가수가 약 2만 5천인데 그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번에 사인에 참여하였으니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일각에서 노력을 하였지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긍정적으로 가르쳐지는 땅에서 하늘로 눈을 돌려 안전지대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겸손함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마르틴 부버가 그의 책 <나와 너>에서 했던 “모든 상대는 나를 가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사물을 예민하게 대하고 자신에 대해 심각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왠지 여유를 잃어버리고 어렵고 복잡한 삶을 사는 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머감각을 가진 척 했지만 속으로는 가벼운 것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모두 어렵고 복잡하였습니다. 인생이 늘 무겁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기쁨과 웃음은 순간이고 실패, 실수, 좌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황하는 제 영혼에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점차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 십자가의 피 흘리는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 그리고 성경말씀과 교회와 영혼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볍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옛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

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자신을 향해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짐을 벗고 가벼워질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유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체스터튼은 “천사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알포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웃을 줄

아는 노이로제 환자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절반은 치유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보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을 비상하는 날개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대단한 문제는 없습니다.

볼티모어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오자마자 다시 월요일부터 베이커스 필드 연합 집회를 가야 합니다. 건강과 일 등으로 괜히 심각해지려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가볍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저를 통해 말씀하실 승리의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살을 축량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 어느 쪽으로 기울어 지겠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남은 인생의 계획 등에 내가 주님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해 자신을 가볍게 하셔서 이번 주간도 존재가 넉넉해진 행복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김세환 목사
LA 연합감리교회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벽”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 누구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번에 꿰뚫어 관통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철저히 잊혀진 “레퍼의 강”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사람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의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서 보지 못하고, 미래는 무지하여 알지 못한 채 “현재”라는 작은 무인도에 갇혀서 불평과 오만을 반복하는 팔각발이 됩니다. 과거에는 간절한 “소원”이었던 일이 현재에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다시 먼 훗날의 “미래”에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는 “치명적인 아픔”이었지만, 미래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나 간증을 위해 초청되어 오시는 유명한 강사들은 대부분 과거에 혹독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당했던 자신의 아픔을 현재의 시간에 곱씹으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향한 숨통을 열어 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꾸미 같이 못생긴 남자”와 결혼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못생긴 얼굴과 왜소

한 체구가 보통 짜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덕분에 이 청년은 결혼한 후 한 번도 부부동반 모임을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남편은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갈퀴손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합니다. 마흔이 다 되었을 때, 다른 친구들의 남편은 모두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서 백수인 나날을 보내는데, 이 자매는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남편을 만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 얼굴 뜯어 먹고 사냐? 뭐니 뭐니 해도 남자는 먹고 사냐?” 입만 열면 쏟아내는 그녀의 남편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 지나간 부도수표 같은 과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직 주어진 것이 많은 백지수표같은 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만 바라 보면서 인생을 속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곧두 박질과 솟아오름을 되풀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철저히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분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과 동일한 시간의 연속선 상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시는 것이 주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가장 귀하고 값진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고전 13:12).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겸손과 지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향생각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한국에 가을이 한창이란다. 설악산 오대산에 단풍이 한창이고 그 단풍이 이번 주에는 서울의 북한산에, 다음 주엔 남쪽의 내장산에 이를 예정이란다. 온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남가주, 그것도 오렌지카운티에 살지만 왠지 이 때만 되면 슬그머니 한국 생각이 난다.

성도들 중에도 유난히 이 때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한국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다. 검사검사 가지는 길이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가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알 것 같다. 은근히 부럽고 시샘이 난다. 나만의 마음이 아닐 것이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까닭에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다. 가족이나 아버지의 고향이 이북인 실형민 가족이니 더욱 그랬다. 그런데 한국을 떠나고 보니 고교, 고향, 그런 말들이 새삼 실감이 난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일년 중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한국 생각이 난다. 막상 가 보면 별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 서울의 가을도 예전의 가을 분위기 하고는 무척 많이 다를 것이다.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서울의 가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하얀 입김이 보이기 시작하고 양치질하는 물이 갑자기 차게 느껴지면서 시작된다. 하늘이 조금씩 맑고 높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시내 한복판 고공의 은행나무가 조금씩 노오

른 마음뿐이지 막상 가면 생각 각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종종 실형민이 시던 성도들이 오십 년 육십 년 만에 그리던 고향을 방문했다가 오히려 실망과 충격에 한동안 힘들어 하던 일을 많이 보아왔다. 서울이야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고향에 돌아와도 어릴 적 고향은 아니더라”는 사실 만큼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런즉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다 떠나온 고향이 있을지라도 떠나온 고향보다는 돌아갈 분향을 더욱 더 사모하며 살아갔다.

“저희가 나온바 분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11:15-16)”

그런즉 굳이 고향 생각을 한다면 영원히 실망치 않을 고향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분향을 한 번 다녀온 사람은 오매불망 그 분향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갔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영원히 실망치 않을 고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합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3010 Wilshire Blvd #208, LA CA 90010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중고차 황제 김기형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D/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 에어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 문잠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2월 1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일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케팅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원장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등골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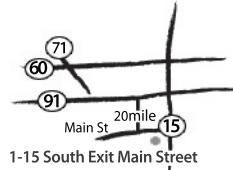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들이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플러밍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즈,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Tel. 213-220-4123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media.com

1.888.894.8949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역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출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은들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웍스/자동차,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세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뉴욕> 분열인가 이탈인가 한달 뒤 결정된다

교연 추진위, 정체성 및 조직 확립기간 갖겠다 밝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의 38회기 시작과 함께 등장한 (가칭)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이하 교연 추진위)가 교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교연 추진위가 정체성 및 조직 확립을 위해 약 한 달간 내부 논의를 가진 뒤 창립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김명옥 대표가 28일 밝혔다.

뉴욕교계에 또 하나의 연합기구 타주와 한국교계에서도 관심

뉴욕교계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연합모임이 새롭게 결성되는데 대해 현재 뉴욕교계 뿐만 아니라 전 미주와 한국교계에서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교계 목회자들은 특히 이 같

은 새로운 기류가 생성되는데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1~2주 내로 명단을 공개하고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교연 추진위측은 보다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추가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월 26일 성명 발표 당시 대표 개념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상황도 정리돼 김명옥 목사가 대표이자 대변인으로 역할이 정해진 상태다.

김명옥 목사에게 모든 업무 위임 창립 행사 준비

교연 추진위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김명옥 목사에

게 조직구성이나 업무연락 및 공식 입장 등의 전반적 업무를 모두 위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명옥 목사도 "저를 통해 나간 발표가 교연 추진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명옥 목사는 "26일 성명 발표 때 102명이었고, 현재 가입을 원하는 이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 100명이 훨씬 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명옥 목사는 창립행사 때까지 명단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향성에 대한 제언 나왔으나 당초 방향성 고수할 듯

현재 교연 추진위는 단체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운데 뉴욕교협과 상충되지 않는 보다 원만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교연에 가입하는 등의 대립적인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뉴욕교협을 탈퇴하지 않은 정회원들의 모임으로써, 뉴욕교협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목회자들의 단체로 정체성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 제언의 핵심이었다.

특히 여기에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언에 대해 교연 추진위 핵심 관계자들은 당초 성명에 발표된 대로 뉴욕교협의 대안적 기구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수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옥 목사는 "뉴욕교협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방향성의 큰 틀은 26일 발표된 성명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분열이나 이탈이나 참여규모에 따라 성격 달라져

현재 교연의 결성에 대해 교계의 가장 큰 관심은 뉴욕교협에 대항하는 개념의 단체에 과연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에 몰려 있다.

특히 교연 추진위측이 26일 발표된 성명서에 거명된 102명 목회자의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뉴욕교계 일각에서는 교연의 규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소수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중에서도 교연의 결성과 관련, 뉴욕교협 일부 인사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일 뿐

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이들도 많았다.

교연의 결성이 뉴욕교협의 분열인지, 일부 인사들의 이탈일 뿐인지 교연의 규모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이번 뉴욕교협 37회 정기총회에서 약 200여 교회가 등록한 가운데, 교연에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뉴욕교계가 양분되는 분열 사태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뉴욕교협 전연직 관계자들이 교연의 결성과 관련,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연의 규모는 한 달 뒤 창립대회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창립 대회와 관련, 김명옥 목사는 "교연 조직을 정비하는데에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며 조만간 창립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주이 기자

김규동 목사, 부흥 위해 목회에 배수의 진을 치라!

철저한 전도와 양육 기반 위에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물욕(物慾)과 성욕(性慾)이 지배하는 나라, 2만 8천개의 종교에 300만 신을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는 나라, 선교 역사에 비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라, 바로 일본이다.

그런 일본에서 동경 요한교회를 개척해 3천명이 출석하는 대교회를 이루고, 일본 주요도시에서 36개 교회 개척을 이끈 김규동 목사가 시애틀 지역 목회자들에게 전도 부흥의 해답과 비결을 제시했다. 김규동 목사가 강조한 것은 '전도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 것', '훈련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김 목사는 "전도는 일시적으로 성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잠재 발을 많이 만들어, 신앙 집중훈련 기간이나 교회 행사 등을 통해 변화시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서 "전도 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며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꾸준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의 원칙임을 기억하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전도보다 양육에 좀 더 비중을 실으며 "항상 기존 신자들이 은혜받게 해야 한다"며 "기존 신자들이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자훈련을 반복해서 꾸준히 하라"고 당부했다.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과 해답 제시해야

동경요한교회는 매일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적인다. 요한교회의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반복적인 학습이 이성적인 일본인들



강의 중 김 목사는 이제는 한인교회가 1.5세, 2세들을 통해 미국 현지인들을 전도해 미국교회로 보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요한교회가 기계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단절된 일본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요한교회는 피상적인 성경공부를 지양한다. '예수를 믿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등 복음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를 비교하면 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교회가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굳게 붙드는 이유는 밀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다. 설교만 들어서는 은혜가 될 수 없고, 성경 전반을 알아야 자신의 삶이 신앙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필요 파악해야

원리원칙에 의해 시스템을 갖춘

경말씀과 함께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

"양육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김 목사는 "삶을 보여주면서 멘토를 겸해 양육이 가능하다"며 "양육은 인격과 비전, 삶과 철학이 종합적으로 보여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에 배수의 진을 치라

이날 김 목사는 여러 가지 목회 방법을 제시했지만, 강의 중반 "목회에 배수의 진을 치라"로 간단히 요약했다.

김 목사는 "심리적으로 도망갈 곳이 없으면 목회에 전념할 수 없다"며 "소명의식을 확고히 붙들고, 상성에 앞기를 경계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목사가 '목회자도 사람인데'라는 예외조건을 둘 것이라면, 목회를 떠나라"며 "성도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요한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김명옥 사모는 ▲다가오는 사람만 전하면 안된다 ▲일한 다음 생색을 내려고 하지 말라 ▲남편의 권위 앞에서 일하라 등 '사모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전했다. 김명옥 사모는 "교회 사역을 할 때 다가오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모든 일을 털어 놓는 것을 삼가고, 사역에 맡은 적합한 인물을 공평성을 가지고 찾으라"고 조언했다. 또 "남편의 정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맺을 돈독히 가져,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리더는 자격과 함께 인격을 겸비해야

사역자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동경요한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품성을 염두에 둔다. 리더가 되는 것은 양육자가 되는 것인데, 성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7차 정기총회



왼쪽부터 예경혜 목사, 문정주 목사, 배현수 목사, 신임 회장 차용호 목사, 신임 부회장 김범수 목사, 신임 부회장 정세권 장로, 김영림 목사

신임회장에 차용호 목사, 부회장에 김범수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7차 정기총회가 10월 31일(월) 저녁 6시 윌메이션스교회(담임 흥원기 목사)에서 열렸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차용호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김양일 목사(대협 증경회장)의 기도, 앤젤 크로마하프찬양단(비비나 양)의 특별연주, 김성도 목사(직전 교협회장)의 설교, 강경아 전도사(드보라 워싱턴스찬양선교단 단장)의 특별 위임선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한 합심기도, 감사패 증정, 한철우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제 37차 정기총회는 5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임 임원진에는 전행위원(현 회장과 증경회장 역임순으로 5명)들이 추천한대로 회장에 차용호 목사, 목

사 부회장에 김범수 목사, 평신도 부회장에 정세권 장로가 각각 인준됐다. 감사로는 이병만 목사와 김성도 목사가 추대됐다.

회계보고에 의하면 지난 회기 총 55개의 교회가 회비를 납부했으며, 총수입은 \$114,905.46이었고 총지출은 \$109,322.88이었다.

신안건 토의시간에는 이단대책위원회와 회칙수정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안건이 나왔으며, 이는 임원진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신임 회장 차용호 목사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성탄축하음악예배,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복음화대성회 등에 타민족들도 초청해 함께 은혜받고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 서기, 회계 등 다른 임원진들은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전망이다. 조요한 기자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집전화의 표준! 아이토크비비

~~\$24.99~~

통큰 할인 * 행사기간 2011년 11월 15일까지

\$14.99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무제한 하나로!

[다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 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24.99~~ **\$14.99** /월

첫 6개월간, 이후 \$24.99/월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30일

환불 보장!

부가서비스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 넘버**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나만의 한국 전화 번호를

무료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없다!

휴대 전화로 국제전화를

Global Unlimited Plus Plan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 **\$19.99** /월

첫 6개월간, 이후 \$34.99/월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내 신규 아이팅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544**

통화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통큰 할인 프로모션 - 프로모션 기간 첫 6개월을 포함해 총 24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받은 요금을 공액하여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약관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는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어 횟수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해지 시 이미 부과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 (\$25.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다른 국가 중 일부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 밖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 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2011 Equus
\$739 + tax
T.D.O \$2,999
O.A.C 3YR/36K (STK#041922)



2012 Genesis
\$399 + tax
T.D.O \$3,499
O.A.C 3YR/36K (STK#167271)



에쿠스, 제네시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달려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2012 Accent
\$169 + tax
T.D.O \$1,999
O.A.C 3YR/36K (STK#116397)



2012 Veloster M/T
\$179 + tax
T.D.O \$1,999
O.A.C 3YR/36K (STK#022103)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 이자율 2.49%

다른 딜러나 은행에서 용자 거절 되신 분
일정의 비용만 내시면 100% 용자해드립니다. 문의: 제니 김

'10 DODGE AVENGER SXT	(P108045/108045)	\$16,888
'10 VOLKSWAGEN NEW BEETLE	(P008693/008693)	\$16,908
'08 TOYOTA CAMRY LE	(142262A/045338)	\$17,888
'08 HONDA ACCORD	(033780A/098353)	\$17,936
'10 VOLKSWAGEN JETTA S	(P082563/082563)	\$18,888
'11 HYUNDAI SONATA GLS	(P049785/049785)	\$18,888
'11 CHEVROLET MALIBU	(P100296/100296)	\$18,964
'10 CHRYSLER SEBRING TOUR	(P123861/123861)	\$18,998
'08 CHEVROLET SILVERADO LT	(259499A/140734)	\$19,963
'11 KIA SORENTO LX	(P001565/001565)	\$19,987
'10 HYUNDAI SANTA FE GLS	(P336562/336562)	\$20,888
'09 HYUNDAI GENESIS 3.8L	(P021782/021782)	\$24,941

'09 HYUNDAI ACCENT GLS	CERTIFIED (U373093)	\$11,299
'10 HYUNDAI ACCENT GLS	CERTIFIED, SILVER, 4DR (U419990)	\$11,399
'03 TOYOTA AVALON SDN XL	4DR, BUCKET SEATS (U281813)	\$11,549
'09 KIA SPECTRA	(5658962)	\$11,899
'10 HYUNDAI ACCENT 2 DCP	CERTIFIED, SILVER (U169045)	\$12,999
'10 KIA RIO	(6687779)	\$13,302
'08 HYUNDAI ELANTRA GLS	CERTIFIED, SUNROOF (80370153)	\$13,499
'09 HYUNDAI ELANTRA SDN	CERTIFIED, 4 DR, AUTO GLS S (U720008)	\$14,789
'08 SCION tC	(80262589)	\$14,899
'10 KIA FORTE	LOW MILES (5129865)	\$15,789
'08 HONDA FIT 5 DR. NB	AUTO SPORT PURP (S014919)	\$15,899
'10 HYUNDAI ELANTRA GLS	CERTIFIED, SILVER (U835311)	\$15,995

상기 모든 모델은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진심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 ~ 9:00pm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월-금 7:30am ~ 6:00pm
▶ 토 8:00am ~ 2:00pm

남녀 영업사원 모집 문의: 찰리정메니저

한국인 상담 제니 김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Zoom-Zoom

전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형 2011 MAZDA 3

\$187 + TAX
Stock No. 490055

스페셜 **0%**

T.D.O. \$2,599
48month, 12K mile/yr O.A.C. with your 1st payment and license fee plus offer ends close of 11/31/11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한국인 상담 제니 김 (310)749-7599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

2011 MAZDA 5
편리한 미니밴

2011 CX-7
실용적인 SUV

스페셜 **0%**

2011 CX-9
3석자리 SUV

스페셜 **0%**

2011 MIATA
여름 정취를 스포츠카